

나홀로 아동(청소년)의 보호체계와 지역사회네트워크

정민자(울산대 교수, 울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

I. 가족성은 무엇인가?

우리가 나홀로 아동(청소년)의 보호체계를 논하기 전에, 근본적인 가치 또는 이데올로기로서, 개인에 대한 가족과 사회의 관계가 도대체 어떻게 규정되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전통적인 한국가족 특성이 근대화 이후로 어떤 변화가 있었기에, 가정에서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전적으로 받으며, 정서적으로 지지받고 양육되어야 할 자녀들이 가정을 떠나거나, 지역 시설 또는 공공복지 시설에서 양육되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는가? 그리고 그러한 보호체계는 한 인간으로 성장하는데, 본질적으로 괜찮은(?) 특성을 가지며, 행복한 가정에서 성장하는 것과 같은 환경을 잘 제공하고 있는가?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 또는 가족환경에 의해 꼭 그렇게 성장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어린 시절의 삶은 성인기에 어떤 인성을 갖고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전생애적인 관점으로부터 들여다보아야 할 것임을 제기하며 논의를 풀어가고자 한다.

가족의 특성이 시대적 상황과 사회제도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제도화가 이루어진 것은 다 알고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최소한 개인에 있어 가족과 가족생활을 사회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가족 또는 부모라는 존재는 무엇이며, 그러한 가족 속에서, 자녀를 위해 부모나 가족이 해 주어야 할 최소한 역할과 의무는 무엇인가?” 라는 사회가 합의해 주어야, 제도적 보호 장치가 이루어진다.

전쟁이후로 폐허화된 한국사회가 근대화와 산업화 과정을 겪으며, 한국 가족원에게 요구한 과대한 노동의 댓가로 물질적 풍요는 이루었는지는 몰라도, 가족내의 정서적 메마름과 친밀성의 문제는 가족문제로서 이혼이나 자녀의 일탈, 가족원의 자살, 다양한 폭력의 형태로 파생되고 있다. 자녀는 가족에서 어떠한 존재인가? 문제는 가족성에 대한 철학적인 문제이자 인간성장에 대한 존재론적 질문을 던진다.

근대적인 인간관과 가족관은 현재 여러 행태로 삶과 제도 속에 반영되고 있다. 즉 가족에 대한 철학이 시대적으로 다르고, 그에 따라 가족유지와 규범마저도 다르다. 한국가족가치의 연구나 가족실태조사 등에서도 나타나지만(여성가족부, 2010) 가족 가치는 오랫동안 남아 있는 한국 전통가족의 기능과 특성이 가족주의적이고 공동체적인 면과 근대적인 가족가치가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에 적응하는 생활양식은 근대적이거나 가족의 유지와 가족의례 면에서는 크게 변화하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한 가족가치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사회는 더욱 경쟁적이고 일중심의 삶의 요구, 여성취업의 증가, 남성과 여성의 역할 공유 등 개인중심적인 근대적 가치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여러 가치들로 인해 가족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는 점차 사라지고 위협적인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재정의 내지 가족원에 대한 국가와 제도 개입을 통한 삶의 유지 기능의 재편성해야할 시점이기도 하다.

그런데 근대적 이상적인 가족가치를 논해볼 때 헤겔은 “가족에서는 구성원들의 상호 배려와 사랑의 감정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 그 구성원들은 개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는 것은 그 이후에 수반된다. 가족구성원이 사랑은 고립적인 개별자를 뛰어 넘는 것이다. 가족구성원들 사이에 나와 타자들의 합일을 이루면서 개인의 개체성이 가족으로 통합된다. 사랑이 이를 가능하게 한다. 즉 사랑은 가족구성원들의 상호 자연적인 합일을 기반으로 하나된다.” 즉 개인들은 가족 안에서 하나로 통일된다. 부부간의 감정은 자녀를 통해서 통일되며, 부부간의 평등한 사랑을 바탕으로 자녀가 성장하고 자라나며, 자식들은 성장하면, 스스로의 자유의사에 따라 또 다른 가족을 형성한다(권용혁, 2013, 282-283). 헤겔은 남녀가 역할을 분담한 일부일처제와 핵가족을 전형으로 하고, 공동체적 특성을 본질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로크의 자유계약론을 바탕으로 한 가족이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 사이의 계약에 의거해서 성립한 개인들로 구성체라고 한 것과는 다른 가족공동체로서 가족 사랑과 자녀들은 그러한 정서적 부부사랑의 실체로서 보고 있다. 물론 성별 역할 분업 등의 문제로 여성의 모성적인 역할, 육아와 가사를 통해 자신의 본능적인 감성을 실천하고, 남성의 사회에서의 노동을 통해 가족을 부양하고 사회적 노동으로부터 돌아와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는 산업사회의 전형적인 가족모델을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현재 대부분의 한국가족들 또한 그러한 가족모델로서, 가족생활을 해 왔다.

현대에 이르러 맞벌이 가정이 상대적으로 많아져 새로운 모델로서 남성과 여성이 함께 일하는 사회 역할모델이지만, 가정에서의 여성과 남성의 역할이란 헤겔이 말한 가족관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즉 여성은 바깥에서도 열심히 일해야 하며, 집에 돌아와도 엄마로서 아내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거기다 여성은 아직도 가족 돌봄의 주체자이다.

그러나 후기 산업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가정에 머무르면서 돌봄을 주로 담당하고 있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크게 증가하여 돌봄은 더 이상 개별가족내에서 충족될 수 없게 되었다(Mahon, 2002; Leitner, 2003; Daly & Lewis, 2000). 따라서 가족 특히, 여성에게 집중되어 온 돌봄의 책임과 역할을 국가, 사회, 가족이 분담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돌봄은 타인을 보호하고 돌봐준다는 의미의 용어에서 사회정책의 대상이 되는 용어가 되었다(장혜경 외, 2007).

여기서 또 논의해 볼 수 있는 것은, 가족이 다른 사회집단과 다른 것은 **가족 안에서의 사랑은 “규범적”이라는 것이다.** 가족 사랑이 규범적이라는 것은 가족사랑 행동의 정상적(normal) 또는 전형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규범적(norm)이라는 것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하는 것, 그렇게 행동하도록 기대되어지는 행동 표준이다. 가족에서 사랑이 규범적이라는 것은 가족 구성원간에 서로 사랑해야만 하고, 사랑이 결여된 가족은 불행하며, 병리적이란 생각이 일반적이란 것이다. 가족은 서로 사랑해야 하며, 가족이 서로 사랑한다고 느낄 때, 다른 어려운 역경들을 넘어선다(정민자, 2005,11). 여기서 건강한 가정이란 서로 협동하고 인내하고 타협해서 공동체로서의 유대감을 다져가는 가정으로 가족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가족원의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

지는 공동체로서의 균형을 잘 유지하는 특성을 가져야 한다. 건강한 개인은 이러한 가정에서 성장하고, 모든 인간의 정체성 확립과 자기존재감은 가정의 영향에 의해 결정되므로 인간에서 건강한 가족관계성을 가진 가정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가족사랑의 요소들은 행동지향적이며, 무조건적이고, 타인지향적이며 지속성을 갖는다(정민자, 2005,12-13). 이러한 가족성과 가족사랑이 과도한 사회적 노동과 경제적 결핍 등에 의해 매몰되거나 파손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문제이다. 건강한 가족성과 가족 사랑이 있어야 가족원은 필수비타민을 먹고, 삶의 에너지를 만들고, 함께 나누며 생존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해야 하는 자녀는 가족을 이룬 부부의 생물학적 정서적 상호작용 존재로서 우선 인식되어야 하며, 자녀의 성장과 지원의 1차적 성분으로서 부모자녀관계가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이다. 부모란 무엇인가에 대한 또 다른 정의적 논의가 있겠지만, 부부에서 태어나 성장하는 심리적 환경으로서의 가족관계성의 본질을 말하고자 함이다. 그런 측면에서 자녀의 성장과 발달 환경은 물리적 환경과 함께 가족성을 고려한 24시간 보호체계를 구성해야 함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성숙한 어른들이 자녀를 출산과 양육과정 따른 행동 결과들,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절대적 시간이 부족한 부모들,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이 증발된 상태, 가족의 구조적 결손, 가족형태상의 파손 등으로 인해 성장과 성숙과정에서 절대적 지원과 보호를 받아야 할 자녀들이 “나홀로 상태”가 되어, 성장과정에서의 심리적 어려움과 외로움에 직면하는 현실들을 사회심리적 측면에서 논의하며, 이데 대한 지역사회공동체의 역할과 네트워크, 건강한 가정 회복을 위한 제도적 노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현재 한국사회의 다양한 아동보호체계란, 사랑의 관계자와 나와 타자를 연결하는 본질적 존재로서 자녀는 사라지고, 생존해야하는 개인적 존재로서 자녀(아동)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점 또한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한다.

본 논의를 통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의 일상생활의 시간들과 그들을 지지해 주는 사회보호체계들의 중요성을 진단하고, 추후 가정과 부모는 어떠한 보호를 받아야할 것인가에 대하여 모색해 볼 것이다.

II. 나홀로 아동(청소년)의 현황과 보호체계

1. 나홀로 아동의 현황(통계)

정부에서 제기하는 나홀로 아동의 정의는 “하루에 1시간 이상 혼자 또는 초등학교 이하의 아동끼리 집에 있는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고 정의하고 연구를 진행한 바가 있다(보건복지부, 2010,여성가족부, 2011).

이러한 정의 하에 나홀로 아동의 얼마일까? 여성가족부(2011)의 한 보고서에 의하면 나홀로 아동은 전국 초등학교 328만명중 97만명으로 추산하며 전체 아동의 29.6%로 본다.

하루에 3-5시간 보호자 없이 지내는 경우가 24.2%, 5시간이상이 23.5%이며, 나홀로 아동의 44%는 1주일에 5일 이상을 혼자 보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홀로 아동의 가족실태는 저소득층이 39.7%로 저소득 가정 아동의 10명 4명이 나홀로 상태에 놓여 있다.

또한 맞벌이 가정(37.8%), 한부모가정(34%), 모두 안계심(30%), 홀벌이가족(15.3%)로 나타나 일과 가족을 함께 병행하고 있는 맞벌이가족의 자녀들 역시 보호체계에서 구멍이 나 있는 상태로서 1순위이다.

<표 1> 자기보호 아동의 추정규모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전체
자기보호 아동 수	427,203명	484,778명	57,902명	969,883명
자기보호 아동 추정 비율	30.16%	29.42%	26.80%	29.57%

<표 2> 자기보호 아동의 하루 중 자기보호 시간

자기 보호 시간	백 분 율
① 1~3시간	52.3%
② 3~5시간	24.2%
③ 5시간 이상	23.5%
전체	100.0%

<표 3> 자기보호 아동의 일주일 중 자기보호 시간

자기 보호 시간	백 분 율
① 1일	24.0%
② 2~4일	32.0%
③ 5일	15.4%
④ 6~7일	28.6%
전체	100.0%

<표 4> 자기보호 아동의 일주일 중 자기보호 일수

정 의	표본 비율	추정 규모	추정 비율
일주일 1일 이상 하루 1시간 이상	29.74%	969,883	29.57%
일주일 1일 이상 하루 3시간 이상	14.18%	469,230	14.31%
일주일 1일 이상 하루 5시간 이상	6.97%	236,924	7.22%
일주일 5일 이상 하루 1시간 이상	14.05%	453,072	13.81%
일주일 5일 이상 하루 3시간 이상	7.39%	240,792	7.34%
일주일 5일 이상 하루 5시간 이상	3.70%	122,351	3.73%

<표 5> 자기보호 아동의 방과 후 활동

활동	백분율
① 숙제 등 공부	55.6%
② TV 시청	43.3%
③ 책읽기나 그림그리기 등	20.1%
⑤ 인터넷이나 휴대폰 게임	19.9%
⑥ 채팅이나 휴대폰 문자	3.9%
⑦ 야외놀이	17.3%
⑧ 그냥 집에 있음	15.5%

<표 6> 부모 구성에 따른 자기보호 아동의 비율¹⁾

	홀벌이가정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모두 안계심
비율	15.3%	37.8%	34.3%	30.3%

출처: 지역연대 운영 표준모델 개발, 2011 여성가족부

이러한 아동들의 방과후 활동이란 집에서 숙제 등 공부를 한다가 55.6%이나 TV시청이 43.3%, 인터넷 게임이나 휴대폰 게임을 한다가 20%에 달하고, 그냥 집에서 논다가 15%, 놀이터나 공터에 논다가 17%가 되어 실제로 아이들의 보호는 문제가 되고 있다. 학부모 들 역시 방과후 자녀만 집에 있게되는 이유가 학원시간이 36.1%로 가장 많았지만, 맡길 곳이 없기 때문에 27%, 그 외에 비용 때문인가 8.1% 마음에 드는 곳이 없다는 2.8%, 정보부족이 1.7%, 아동을 맡기고 싶어도 맡기지 못하는 부모들이 40%로 나타났다.

Ⅲ. 나홀로 아동의 실제사례²⁾

[사례1] E(남, 4학년)는 모자가족으로 모가 잠자는 시간 빼고는 부재하며 바쁠 때는 집에 들어오지 않고 차안에서 잠을 자고 출근하는 경우도 있다. E는 아침에 일어나면 동생과 둘이 있으며 거의 등교시간이 다 되어 갈 때쯤 일어나 아침식사를 하지 못하고 등교한다. 학교에서 13시까지 수업을 듣고 마친 후 방과후 교실에서 영어공부와 로봇활동을 하고 센터로 온다. 동생과 함께 센터에서 생활을 하다가 19시부터 태권도장에 가서 운동을 하고 집에 돌아간다. 집에 돌아가면 동생과 둘이 있으며 TV를 보거나 놀다가 잠들면 모가 들어오고 E가 잠에서 일어나기 전에 출근한다. 주말에는 오전에 센터 프로그램에 참가하거나 교회에 가며 오후에는 동생과 친구

1) 나홀로아동을 위 연구보고서에서는 “자기보호아동”이란 긍정적 표현하고 있지만, 자기보호를 하는 아동이 실제로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동이 방임되거나 보호 받지 못하는 상태가 가장 정확한 것일 것이다.

2) 본 사례들은 연구중인 자료의 일부를 인용한 것이며, 지역아동센터에서 인터뷰한 것임.

와 놀고 밥도 차려먹는다. 동생과 둘이 있는 것은 무섭지 않고 힘들지 않지만 밥 차려 먹는 것이 제일 힘들다고 답했다. E에 대한 보호체계는 주중에는 학교에 가서 태권도장에 있는 것까지는 있지만 그 외의 시간은 없으며 주말에는 센터나 교회에 있는 시간 외에는 없다. **모와 대화를 하는 시간은 없으며 모는 E의 생활에 대해 거의 모른다.**

지역아동센터에 다닌 지는 1년 정도이며 센터에서 주로 간식과 식사, 공부, 놀이, 악기연주 등을 하며 지낸다. 센터에서의 친구관계는 좋은 편이며 센터에서의 공부는 학업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

<표 7-1> [사례 1] 아동 E의 주중 일과표

시간	0~7시	8시	9~13시	14시	15~18시	19~20시	21~24시
누구와	모, 동생	동생	교사, 친구	교사, 친구	복지사, 친구, 동생	친구, 동생	동생
무엇을	취침	기상, 식사, 등교	공부, 식사	영어, 로봇	상담, 공부, 놀이, 식사	운동	취침
어디서	집	집	학교	학교 방과후교실	지역아동센터	태권도장	집
부모여부	○	×	×	×	×	×	×
보호체계 여부	○	×	○	○	○	○	×

<표 7-2> [사례 1] 아동 E의 주말 일과표

시간	0~7시	8시	9~13시	14~20시	21~24시
누구와	엄마, 동생	동생	교사, 친구	친구, 동생	동생
무엇을	취침	기상, 식사, 견학, 놀이, 종교활동	놀이, 식사	놀이, 식사	취침
어디서	집	집	학교, 교회	집, 야외(놀이터 등)	집
부모여부	○	×	×	×	×
보호체계 여부	○	×	○	×	×

<평가>

모자가족이며 두 명의 자녀가 있는 가정이나 어머니는 아침에 잠만 같이 자고(가끔은 없음), 먹고 살기 위해 자녀들은 부모로서 정서적 체계로서 작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자녀의 인터뷰에서 부모와는 소통하지 못하고 지내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여기서 학교와 방과후 교실, 지역아동센터, 교회, 학원의 지역사회네트워크가 시간대를 달리하여 이 아동의 성장과 지지체계로서 부모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과 보호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주말의 경우는 교회의 시간에는 거의 방치된 상태이다. 이 가정의 경우는 지역사회자원들과 공공시설로서 지역아동센터, 학교방과후 교실 등이 없었다면, 절대적으로 유기상태에 놓여 성장에 많은 문제를 갖게 되었을 것이다.

사례 2] F(여, 5학년) 부자가정이지만 조모와 함께 살고 있다. F는 아침에 일어나면 가족이 다 있고 아침식사를 한 후에 등교한다.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방과후 교실이 끝나면 센터로 온다. 센터에서 19시에 집에 돌아가며 집에 가면 조모와 오빠가 있다. 집에서 주로 할머니랑 있으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다. 주말에는 오전에 센터에 가거나 교회를 간다. 오후부터는 주로 집 안에서 지낸다. 특별한 경우는 부와 함께 낚시를 가거나 외출을 한다. 낚시를 할 때, 부와 대화는 거의 하지 않으며 옆에 가만히 있는 다고 답했다. F의 보호체계는 학교, 센터를 제외하면 거의 조모와 함께 있는 경우가 많으며 부와 함께 하는 시간은 적다.

센터를 다닌 지는 2년 정도 되었으며 학교복지사를 통해 알게 되고 다니게 되었다. 센터를 다니지 않았더라면 그냥 집에 가만히 할머니랑 있었을 거라고 답하였다.

<표 8-1> [사례 2] 아동 F의 주중 일과표

시간	0~7시	8시	9~14시	15시	16~18시	19~20시	21~24시
누구와	부, 조모, 오빠	조모, 오빠	교사, 친구	교사, 친구	복지사, 친구, 동생	조모, 오빠	조모, 오빠
무엇을	취침	기상, 식사, 등교	공부, 식사	공부	상담, 공부, 놀이, 식사	TV시청	취침
어디서	집	집	학교	학교 방과후교실	지역아동센터	집	집
부모여부	○	○	×	×	×	○	○
보호체계 여부	○	○	○	○	○	○	○

<표 8-2> [사례 2] 아동 F의 주말 일과표

시간	0~8시	9~13시	14~20시	21~24시
누구와	부, 조모, 오빠	교사, 친구	조모, 오빠	조모, 오빠
무엇을	취침	견학, 놀이, 종교활동	식사, TV시청	취침
어디서	집	지역아동센터, 교회	집	집
부모여부	○	×	○	○
보호체계 여부	○	○	○	○

<평가>

부자가정이지만 할머니가 계시는 3대가족이다. 이 경우에 어머니의 역할을 조모가 대신하며, 가정의 친밀성과 대화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아동 역시 학교와 방과후 교실, 지역아동센터가 보호체계를 이루며, 저녁에는 할머니가 있는 가정으로 돌아와 밥을 먹고 저녁에 부가 없어도 오빠와 할머니로서 가족관계를 이루고 지낸다. 교회 역시 주말에 지역사회네트워크로 작동하고 있다. 대부분의 시간을 가족과 보낼 수 있는 것은 어머니의 역할을 대신하는 조모가 있기 때문이다.

IV. 나홀로 아동의 보호체계-공적 시스템

1. 나홀로 아동 공적 서비스 대상 연령

현재 나홀로 아동의 존재를 여성가족부의 연구보고서에서는 97만명으로 추산하지만(13세미만), 보건 복지부의 추계에 의하면 방과후 나홀로 아동(만6-15세)은 240만명이며, 중위소득(월소득 304만원) 50%미만 가구 아동이 44만명, 초등학생의 경우 약 24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으로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가 각각 초등학교과정 고시 2009-41호, 아동복지법 제 16조, 31조, 청소년기본법 48조2항, 아이돌봄지원법에 의해 돌봄·보호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현재 교육부의 돌봄교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보호 시스템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들의 운영주체와 운영방식이 각각 다르게 시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서로 유기적인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정민자, 2013).

이러한 공적 기관들이 제공하고 있는 “나홀로 아동”의 보호체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유관기관들의 대상연령, 운영시간, 프로그램 내용을 비교분석해 결과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9> 나홀로 아동 공적 돌봄 서비스 대상 연령분석표³⁾

기관	0~6세	7세	8세	9세	10세	11세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지역아동센터		(주대상) 빈곤·학대·방임 가정, 한부모·조손·소년소녀 가정, 맞벌이·이혼가정의 아동, 다문화가정 아동											
드림스타트	(주대상) 0세(임산부)~만12세(초등학생이하)로 아동의 성장 및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												
방과후 돌봄교실		(주대상) 저소득·한부모·맞벌이 가정의 아동											
교육복지		(주대상) 경제적 취약 가정, 다문화가정의 아동, 북한이탈주민 학생, 학업부진 학생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주대상) 일반 가정 및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								
아이돌봄지원사업	(주대상) 모든 가정의 아동, 저소득·한부모·맞벌이·다자녀 가정은 일부 국비지원												
청소년상담복지(CYC-NET)					(주대상) 일반 청소년 및 위기 가능 청소년								

3) 본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저자에게 위탁된 연구(2013)중의 일부를 인용한 것임.

유관기관들의 나홀로 아동에 대한 보호연령을 살펴보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9세 이상인 경우만 제외하면 초등학교에 아이를 돌보는 시스템은 방과후 교실(교육부, 학교) 교육복지(학교) 지역아동센터(보건복지부), 드림스타트, (보건복지부), 아이돌봄사업(여성가족부)가 모두 중복으로 네트워크망을 형성하고 있다. 최근에 교육부는 학교를 중심으로 공적 보호 시스템을 운영하고자 의지를 표명하였고, 실제로도 가장 많은 아동들이 보호와 교육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학교의 “나홀로 아동” 보호체계로서의 기능은 크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본바와 같이 학교외의 시간 특히 늦은 저녁시간에 계속 학교시설에 남아져 있다는 것은 아동의 성장환경으로서 가족성이 매우 결여된 면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어디까지나 시설에서의 보호란 아동의 물리적 보호와 식사등의 해결은 되겠지만, 인간에게 있어 평화로운 휴식이나 가족사랑이 주는 무조건 지지와 정서적 친밀성의 부분을 대체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아동보호체계가 다양하게 시간대별로 기관별 네트워크가 구체적일수록 나홀로 아동의 보호는 유익할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24시간을 가정내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의 등장**이다. 만12세까지 일시적으로 자녀가 혼자 놓여질 경우에, 부모를 대신할 돌봄활동이 제공된다.

이에 대한 이용자 가정 역시 어머니의 취업활동에 가장 많이 활용된다. 그 다음으로 자녀양육 부담 때문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표10참고)

<표 10>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사유 현황

이용 사유	직장 근무	교육 참여	병원 치료	산후 후유증	집안 행사	자녀양육 부담	합계
건수	1,968,425	112,976	54,607	19,202	24,618	382,552	2,562,380
비율	76.90	4.40	2.10	0.70	1.00	14.90	100

출처: 2012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2. 자녀 돌봄 서비스 운영시간

현재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공적 시스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간을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오후 7시까지 원칙이지만, 다니는 아동의 상황에 따라 9-10시까지 운영하기도 한다. 방과후 돌봄 역시 “온종일 엄마표 교실”로 저녁돌봄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저소득층과 특수가족상황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 교복족지사업이 있으나, 이 역시 오후6시가 원칙이다.바오가후아카데미 역시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위기청소년을 위해 CYS-NET(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활동이 시작되었고,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청소년을 위해 상담 내지 쉼터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 나홀로 아동이 되지 않도록 가정에서 24시간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적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 것은 아이돌봄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가정내의 부모역할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 시스템 역시 모든 가정이 이용하기에는 이용료 부담이 있다. 가정에서 자녀가 성장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이돌봄 이용료는 프랑스의 가족기금에서 보육료가 지원되었듯이 사용한 금액에 대해 무상보육료와 같이 국가지원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자녀가 부모가 있는 환경에서 가족원으로서 가족사랑 대상으로서 위치를 갖는 것은 이러한 24시간 돌봄을 가정에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완적인 공적 시스템을 가동하려는 자녀에 대한 가족가치를 갖는데서 시작될 것이다.

<표 11> 자녀 돌봄서비스 운영시간

돌봄서비스 기관	운영시간
지역아동센터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루 8시간 이상 주 5일 운영 원칙 -학기중: 14:00~19:00(필수운영시간) -방학 및 공휴일: 12:00~17:00(필수운영시간) -필수운영시간을 포함하여 총 8시간 이상 운영하여야 함
드림스타트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시간: 09:00~18:00 (공휴일 제외)
방과후 돌봄교실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침돌봄교실: 06:30~09:00 • 정규교육과정 및 오후 돌봄교실: 09:00~18:00 • 저녁돌봄교실: 18:00~22:00
학교교육복지사업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시간: 09:00~17:00 (공휴일 제외)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금: 16:00~20:00 • 토: 09:00~15:00
아이돌봄지원사업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제돌봄, 종일제돌봄, 기관과건돌봄, 전염병질병돌봄 모두 24시간 운영
CYS-NET(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시간: 09:00~18:00 (공휴일 제외) • 긴급지원체계: 24시간 운영

3. 나홀로 아동 관련 공적 돌봄 서비스 프로그램

위 프로그램들을 분석해 보면 공통적으로 나홀로 아동으로 남겨진 경우에 필수적으로 해야 할 내용 중에 식사의 해결과 학습지원의 문제가 나타난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는 매일 정기적으로 문을 열어 아동의 보호, (특히 급식제공), 학습지도가 주를 이루며,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는 활동과 함께, 문화체험활동, 가족상담과 부모교육, 지역사회연계와 후원금 모집이 있다. 최근에는 사례관리가 의무화되어 있어, 저예산 속에서 전문가적 활동과 관리가 요구되어(보건복지부, 2013) 지역아동센터의 과중한 업무부담이 예상된다. 드림스타트의 경우는 통합사례관리가 주요업무로서, 나홀로 아동의 신체, 건강, 아동 및 가족지원, 인지 및 정서지도 등 다양한 활동을 연계하거나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경우는 지역아동센터와 업무가 중복되고 있지만 실제, 드림스타트의 인력 구성이 3명의 공무원과 전문

가 3명이 이러한 다양한 업무와 서비스 제공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나난다. 최근에는 지역아동센터와의 네트워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제안되고 있다, 즉 드림스타트센터는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만큼의 인적 자원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사회자원의 연계,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24시간 보호체계정보를 구축하는 것 등으로 기관의 역할을 차별화 할 수 있다.

방과후 교실은 학교내에서의 아동보호체계이므로 주로 학습활동 중심으로 구성되며, 교육적 효과를 갖고 올 수 있다. 학교의 나홀로 아동에 대한 중요사업으로 교육복지사업이 있는데, 이는 특히 학습이외에도 정서 함양이나, 급식제공, 문화활동체험 등의 활동이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시스템이다. 특히 활동의 범위나 내용 등이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등에서 이루어지는 있는 내용들이어서, 아동의 선택의 폭이 있기는 하지만, 방과후 교실과 중복되고 있는 점도 있다.

아이돌봄 사업의 내용은 24시간 자신의 가정에서 돌봄을 직접 제공받고 있다는 점이다. 보호 내용은 좋은 어머니가 제공해야 할 일상의 생활지원과 정서적 휴식, 생활관리, 학습 및 숙제지도 등의 관리과 교육을 동시에 제공하여, 기존의 공간과 시간상에서 특별하게 차별화되면서 제공 프로그램 역시 일상의 가정생활로의 복귀와 학습환경을 건강하게 제공하고 관리하는 역할이 된다. CYS-NET의 특별한 활동은 일상적 학습을 제외한 긴급한 상담과 보호체계 구축, 긴급한 아동의 교육과 자립지원, 법률지원, 건강지원 등이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기관들은 프로그램에서 중복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지만, 위 기관에서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없는 것은 아동의 행복추구권이다. 시설에서 벗어나, 원하는 공간에서 학습이든 문화 활동이든 편안하게 지내고 싶은 욕구가 어른이나 아동에게 모두에게 있다. 따라서 사업의 중복성이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성장과정에서 자유롭고 평안한 환경에서 정서적, 문화적 향유를 할 수 있는 선택의 범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즉 방과후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은 경우는 가정에서, 지역사회 다른 기관들에서 아동이 자랄 수 있고 지원받을 수 있는 선택의 범위를 넓혀주는 측면에서 서비스의 중복이 문제가 아니라 서비스의 양이 아동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으로 전환되는 것이 중요하다. 앞의 사례에서 보듯이 부모와 가정에서 받고 누려야 할 정서적 지원과 소속의 욕구들, 자신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심리적 공간과 생활시간들은 과연 어떻게 공적 기관이 대체할 수 있겠는가! 이에 대한 철학적 가치는 계속 의문을 갖게 한다.

<표 12> 나홀로 아동 관련 공적 돌봄 서비스 프로그램

돌봄서비스 기관	프로그램 내용
지역아동센터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임아동보호 -생활·위생지도 -급식제공 등 ●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체험 -견학, 캠프 -공동체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상담 -부모교육 -후원 ● 지역사회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내 인적·물적 자원연결 · 교육 ● 학습·숙제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체능교육 등

<표 12>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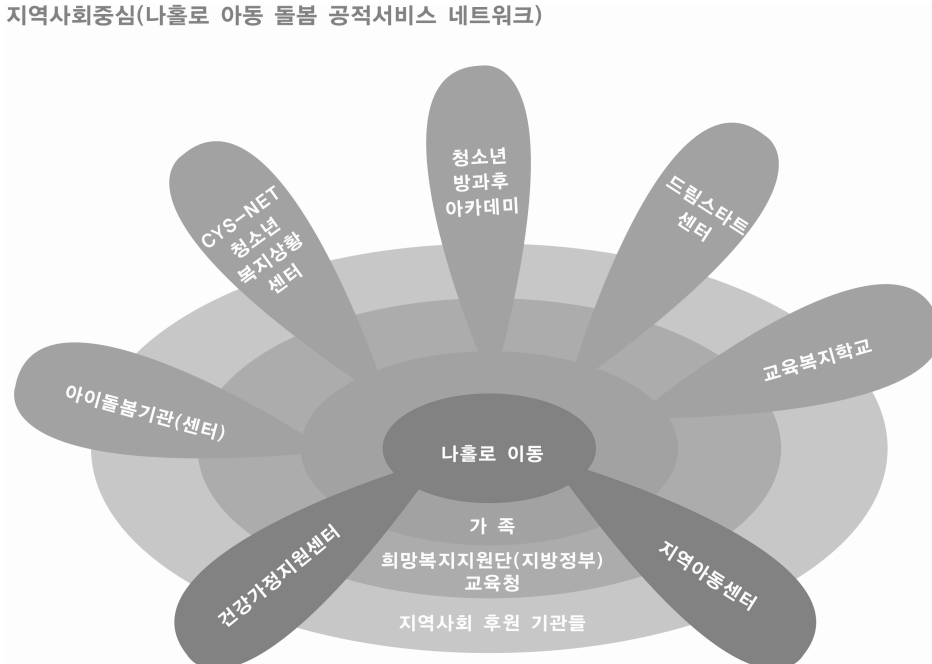
돌봄서비스 기관	프로그램 내용	
<p>드림스타트 -보건복지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건강 -건강검진 및 예방 ● 부모 및 가족 -부모교육 -부모지원 -임산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지/언어 -기초학습지도 ● 정서/행동 -사회정서지원 -심리행동지원 -보호
<p>방과후 돌봄교실 -교육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후보육교실 -과제지도 -교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연계 ● 특기·적성 계발 -특기·적성, 소질계발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프로그램 -무학년 수준별 선택프로그램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 프로그램 ● 평생교육 -문화프로그램
<p>학교교육복지사업 -교육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능력증진 ● 문화·체험활동지원 ● 심리·정서발달지원 ● 진로탐색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프로그램 활성화 ● 교사·학부모지원 ●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
<p>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여성가족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체험 -문화/예술 -스포츠 -세계/시민 -지역/사회 ● 학습지원 -숙제·도서지도 -보충심화학습 -자기주도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지원 -급식/귀가 -건강관리 -상담 ● 특별지원 -학부모간담회 -캠프 -강사간담회
<p>아이돌봄지원사업 -여성가족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연계 -시간제자녀돌봄(가정생활지도, 식사제공, 자녀양육활동 등) -숙제지도(초등), 학습활동지원 -기관과건돌봄 -전염성질병돌봄 ● 서비스관리 -모니터링 -만족도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돌봄관리 -양성교육 -보수교육 -간담회·월례회 -소모임
<p>CYS-NET(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성가족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개인·집단상담 -심리검사 ● 보호 -긴급구조/일시보호 -귀가지원/식사제공 -청소년쉼터·그룹홈연계 ● 교육 -검정고시응시지원 -대안교육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 -직업·취업정보제공 ● 법률 -조사동행/변호지원 ● 문화 -동아리활동지원 -수련관프로그램지원 ● 건강 -약품·치료지원 -건강진단

V. 나홀로 아동(청소년)을 위한 보호체계와 지역희네트워크

기본적으로 나홀로 아동의 보호체계는 가정을 가장 기본적으로 하여야 한다. 지역사회에는 정부가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고자 여러 형태의 아동 돌봄 골격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 아래 그림처럼 학교(교육복지, 돌봄교실)와 지역의 아동복지기관(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건강가정지원센터(아이돌봄서비스기관), 드림스타트 등이 서로 연계하여 아동보호 및 양육 활동을 하고 있다. 교육청의 학교지원과 아동보호정책, 희망복지지원단(지방정부)의 전자정부로서의 연계와 관리, 월드비전, 초록우산 등의 민간 아동보호 및 지원 전문기관, 종교기관 등은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중요한 자원이다.

현재 공적 돌봄 시스템 사이에도 지역사회협의체를 구성하여 어느정도 정보를 주고받고 있지만, 그에 대한 근거 법령들이 없다. 따라서 담당자들이 얼마나 통합적인 아동보호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편차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중심(나홀로 아동 돌봄 공적서비스 네트워크)



VI. 맺음말

지금까지 현재 나홀로 아동의 현황과 아동보호시스템과 공적 돌봄시스템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지역사회중심 아동보호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생각해보야 할 것은 “자녀가 성장한다는 것은 가족과 어떤 관련을 갖는가?”에 대한 것이었다. 이것은 가족의 존재가치와 관련된다. 시대와 사회에 따라 가족제도의 재구성과 가족구성원의 위치, 가치들은 다르게 정의되어왔음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후기 산업사회이후로 여성의 사회진출과 함께 일하는 사회, 맞벌이 가족의 대중화, 일과 가족의 병행, 가족돌봄의 사회화 등은 여성의 삶과 직결되는 것이다. 여성은 모성을 가져야 하며, 가족의 정서적 역할을 여전히 갖고 있으며,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의 1차적 책임을 지고 있다. 가족 내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역할 공유를 원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실천되지 않고 있다. 거기다 자녀의 성장과 지원은 가족이 1차적으로 해야 할 가족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이다. 한 인간의 탄생과 양육은 기계에서 태어나고 복제된다 하더라도, 사육의 대상이 아니다.

헤겔이 결혼과 가족에 대해 언급한 바, 이상적인 가족이란 개별적인 개인 존재를 넘어 사랑과 친밀성을 바탕으로 결혼하고, 그 부부사이에 정서적 상호작용과 연결성속에 자녀는 존재하는 것이다. 자녀에 대한 가족사랑은 그런 의미에서 규범성을 갖는다. 즉 가족을 사랑해야 하는 명제가 있으며, 그런 가족 사랑이란 행동지향적이고 지속성을 가지며, 희생과 헌신성과 비계산성을 가지며, 공동체의 특성을 갖게 된다.

나홀로 아동(청소년)의 정의에서 본바와 같이 아동이 부모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시간이 1시간이상 넘어서거나 자녀들끼리 남겨진 상태에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실제 100만명 정도의 아동이 그런 경험을 한다고 보고되었다.

산업후기사회의 주요가족으로 등장한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이 나홀로 아동의 상태가 가장 많았다. 나홀로 아동 상태가 되는 가족들의 특성은 대체로 저소득의 도시가족들, 한부모가정들, 조손가정들, 부모가 있더라도 부모와의 소통이 단절된 가정들(언어소통이 되지 않는 일부 다문화가정, 부부불화로 인한 정서적 부모의 증발, 정서적 친밀성이 사라진 가정들)등의 여러 요인들이 내재하고 있음을 질적 사례분석 등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가족이란 무엇인가? 자녀와 부모는 어떤 관계여야 하는가? 사회정책들은 자녀성장양육을 위해 부모 역할과 가족성을 위해 필수적으로 해야할 정책 방향은 무엇인지를 숙고할 시점에 이르렀다. 즉 자녀가 있는 집으로 부모들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녀양육이 끝나지 않은 부모들에게 좋은 부모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패러다임을 적용해야한다. 아마도 가장 근본적인 정책은 **“일과 가정의 양립정책”**을 제대로 실행해야한다는 것이다. **“건강한 가정이 있어야 건강한 개인이 있다.”**는 명제를 잊지 말아야 한다.

부모역할을 대신하거나 보완하는 현재의 아동보호 양육지원시스템은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음을 위 분석결과들에서 살펴보았다. 따라서 자녀의 본원적 성장과 존재가치를 주변머리만을 두드리는 정책이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부모자녀관계 강화 정책”**을 실천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무한경쟁사회로 몰아가고 있는 일(노동)에 대한 가치, 과도한 경쟁과 줄세우기 교육 가

치, 빈둥지가 되어 버린 가정, 일에 내몰린 우리들의 일상을 어디선가 일단정지를 하고,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할 때이다. 즉 한국사회의 모든 사회정책들이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정책이 우선 필요하다. 한 예를 든다면 “**일과 가정의 균형정책**”의 어젠다를 우선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가족은 생물로서, 항상 수동적으로 국가정책에 편입되지 않는다. 살아있는 존재로서 가족구성원들은 결국 자신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대가 오면 제도적 거부할 하게 되어있다. 가장 대표적인 거부 현상이 바로 가족안에서 자녀출산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는 곧 한국 미래를 걱정하게 하는 저출산고령화 증상을 잉태하지 않았는가.

둘째, 국가가 얼마나 우리 가족과 개인을 위해 개입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가? 최근 영유아 무상보육이란 국가적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전쟁을 하고 있지만, 이 또한 무한돌봄을 국가에서 모두 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자녀양육정책의 한계이다. 학교에서 아동보호를 위해 종일엄마품 교실이나, 어린이집 유치원들의 종일제 돌봄 정책을 실천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 또한 한계를 갖는다(2014년 종일돌봄 확대 방과후 돌봄교실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지방교육청에 떠넘기는 정책을 발표함). 아이들은 여러이유로 학교와 돌봄시설에서 교육과 보호를 받은 후에는 가족사랑이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 평화로운 휴식과 키움을 받아야 한다. 부모가 없는 가정일지라도 부모역할을 대신해주는 조부모가 있는 조손의 가정의 자녀들을 인터뷰해 보면, 시설이 좋은 양육원보다 병든 할머니가 계신 나의 집이 좋다는 것이다. 즉 가족이란 정서가 주는 근원적인 자기 소속감은 물질적 풍요로움을 대신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건강한 가정을 회복하는 사회정책**이야말로 인적 자원과 관련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셋째, 어떻게 부모를 가정에 돌려보내고, 아이들을 건강한 가정에서 양육되도록 할 것인가? 일단 양육기에 있는 부모들을 위한 **다양한 부모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자녀가 있는 부모들(여성만이 아님)이 아이들과 더 함께 하고, 더 많이 상호작용하며, 친밀한 정서를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와 시간 확보하도록 한다. 부모기술과 부모됨이 부족한 경우에는 새로운 교육과 가치를 함께 나누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국가정책과 예산이 필요하다. 일터에서는 자녀를 위한 일이라면, 먼저 고려해주는 **가족사랑 중심적인 가족친화적 활동이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아동의 행복추구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성장이 덜 끝난 아동의 학업집중과 학교생활 피로도, 개인적인 휴식을 하지 못하는 시설 중심의 아동보호체계는 인간중심적 철학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아동의 24시간 생활을 분석해 보면 절대적으로 버려지는 듯한 시간들과 부모와의 관계부족, 의사소통부재, 한끼의 식사 마저 위협을 받는 나홀로 아동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앞에서 언급하고 있는 다양한 보호기관들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사람은 관계를 하고 속함을 경험하면서 친사회적 성품과 대인관계 능력, 신뢰감, 더불어 살아가는 기술, 정서적 풍요로움을 갖게 된다. 따라서 나홀로 아동의 통합적인 보호체계는 아동의 속한 가족, 학교, 지역사회 유관기관들이 함께 진정한 자녀돌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합의가 먼저 필요하고, 그에 따른 **기관들의 네트워킹**이 필요하다.

다섯째, 현재 한국사회에서 10명 중의 3명의 아동들이 나홀로 아동상태이라면, 참으로 심각한

상태이다.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아동들의 스마트폰 중독율, 인터넷 게임의 중독문제, 청소년 자살 저연령화와 원인, 학교폭력, 배회하는 청소년들과 비행들의 원인에서 가정을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정서적 메마름과 가족사랑의 고갈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하고, 알 수 없는 불안과 무기력감, 좌절감 등으로 꿈과 희망이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여기서 이러한 아동청소년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부모와의 의사소통 부재, 가정불화, 경제적 빈곤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한다.

바로 **건강한 가정, 가족사랑을 회복하는 정책**이라고 간단히 말할 수 있다. 자기조절력은 가족관계와 대인관계에서 지지받고 어려움을 이기고 인내하며 길러진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현실적인 체험이며, 고통과 갈등을 건강하게 처리하는 훈련의 장이 필요하다. 초기적응이 일어나고 길러지는 부모와 가족환경이 가장 기초적인 현장이다. 건강한 가정 역시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사건들과 고통들을 건강하게 처리하는 기술과 가족관계 기법 등을 학습해야 가능한 것이다. 아이는 낳으면 저절로 키워지는 전통적인 가족공동체가 무너진 이 시점에 한국의 인력개발과 건강한 사회인의 육성은 가정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친가족정책의 실천이 필요하다. 요즘 인문학이 뜨고 있는 것도 매우 다행스런 사회적 분위기다. 인간과 삶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은 가족은 무엇이며 부부란 무엇이며, 부모-자녀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하고 있다.

여섯째, 지역사회에서 24시간 나홀로 아동보호를 위한 네트워킹을 위해 지역사회자원과 기관들은 우선적으로 연계하고, **유관기관들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앞에서 공적 기관들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역사회의 자원들은 민간기관들도 많다. 자원봉사기관들, 어린이집 연합회, 유치원연합회, 학원연합회, 경찰서, 상담기관들 NGO기관과 작은 모임들(월드비전, 초록우산, 어머니모임들, 독서회), 기업가들, 이들은 물적 인적 자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유로운 협의체를 갖도록 한다. 현재 정부기관의 연구들은 공적 기관중심의 협의체 등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 또한 지역성을 잘 모르는 정책들이다. 거버넌스적 정부란 민간기관들의 지역사회자원들을 잘 개발하고 연계하는 것이다.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환경은 아주 민감하고 세부적이고 지역사회문화가 개입된다. 따라서 농촌의 자녀 양육환경이 대도시랑 같을 수 없다. 지역특성과 공동체를 고려하여 서로 아이를 사랑하고 지원해주는 지역사회가 부모와 함께 아이를 키우는 문화를 갖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나홀로 아동의 상태를 줄이기 위한 부모와 가족, 지역사회 노력, 국가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매우 중요하지만, 제도적 대안 마련은 범부처적으로 실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 정부도 이를 위해 부처간의 회의를 통해 정책 마련을 하고 있지만, 나홀로 아동이 발생한 후의 사후문제 처리 정책들 뿐이다. **예방을 통해 나홀로 아동 수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마련**이 함께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시적인 정책 실행도 중요하지만, 아동을 1시간 이상 혼자 둘 경우엔 신고를 하고, 보호자(친척, 이웃, 돌보미)를, 시설(기관) 이용 등을 하도록 **아동복지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한 규칙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벌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 등을 구체화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12). 「2012년 방과후학교 운영현황」.
- 김홍원 · 임현성 · 김유리 · 양애경 · 정영모(2010). 「방과후 학교 온라인 현황 조사」.
- 보건복지부(2012). 「2012년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보고서」.
- 보건복지부(2013). 「2013년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13). 「2013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13). 「2013년 지역아동센터 매뉴얼」.
- 송혜림 · 조영희 · 정영금 · 고선강 · 김유경(2010). 일-가정 양립을 위한 자녀돌봄 요구 및 정책 개발 연구.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1). 「지역연대 운영 표준모델 개발」.
- 여성가족부(2012). 「2012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 여성가족부(2012). 「한부모가족실태조사」.
- 여성가족부(2013). 「2013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매뉴얼」.
- 여성가족부(2013). 「2013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연구」.
- 여성가족부(2013). 2013년 청소년백서」.
- 우희영(2011). 초등돌봄교실 아동의 방과후 보육생활 만족도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사회 복지대학원.
- 이태수(2011). 방과후 돌봄서비스 연계 정책토론회.여의도연구소(국회의원 임해규).
- 정민자(2005) 가족사랑을 위한 마법의 책(울산대학교 출판부)
- 정민자(2013) “나홀로 아동” 보호를 위한 통합적인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미간행,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보고서)
- 조영희(2012). 아동청소년 방과후 돌봄서비스 현황과 가족정책적 과제. 한국가정관리학회. pp. 139-155.

인터넷 사이트

- 교육부, www.moe.go.kr
- 네이버, www.naver.com
- 보건복지부, www.mw.go.kr
- 서울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ww.teen1318.or.kr
- 여성가족부, www.mogef.go.kr
- 전국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www.icareinfo.info/
- 청소년전화 1388, <http://www.1388.or.kr/index.asp>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www.kywa.or.kr

기사

- 중앙일보, 2013.10.17